

1차 세계대전으로 독일 표현주의 미술의 영향

2023. 11.19 2507 박예영

주제 선택 계기

- 동아시아사에서 여러 전쟁들이 나왔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전쟁이 1,2차 세계대전이었다. (전쟁이란 정말 끔찍하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라는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 그래서 1차세계대전 이후 미술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해서 탐구하게 되었다.

미술작품의 영향

- 새채의 화가라고 불리는 마티스의 작품은 다양한 색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보면 유난히 어두워보이는 작품들이 있다. 이 두 작품의 차이는 전쟁 전 과 후로 나뉘어진다.
- 무채색위주의 색, 직선적이고 딱딱해보이는 선들 이것이 전쟁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 1900년대 초 중반에 활동했던 화가들은 두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전쟁이란상황속에 느껴지는 혼란과 우울함 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Joy of life, 앙리 마티스, 1905-6



French Window at Collioure, 앙리 마티스, 1914
1차 세계대전에 중에 그려진 작품

표현주의 의미

의미

표현주의: 미술사와 미술비평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미술의 기본 목적을 자연의 재현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며,
르네상스 이래 유럽 미술의 전통적 규범을 떨쳐버리려 했던
20세기 미술 운동 중의 하나이다.

표현주의 발생원인

발생원인

표현주의가 명확한 강령으로 자리잡게 된 것을 1905년경부터지만 그 싹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이다.

표현주의 운동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으나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동시에 전개되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1933년 나치의 탄압으로 해체되기 전까지 다른 어떤나라보다 표현주의가 발전했다.

표현주의는 야수파, 초기의 입체파, 인상주의, 그리고 의식적으로 모방을 거부한 다른 여러 화가들의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 독일 비평가들이 1911년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다.

그러나, 이 용어를 구뤼네발트나 엘 그레코 같은 화가들 에게 적용함으로써 용어 사용에 약간의 혼란을 가져왔고, 더 넓은 의미로는 낭만주의나 바로크와 유사한 미학·비평 용어로 통용되기도 했다.

표현주의 화풍에 끼친 영향

화풍 표현법에 끼친 영향

표현주의자들은 예술의 진정한 목적이 감정과 감각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회화의 선, 형태, 색채 등은 그것의 표현 가능성만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성(구도)의 균형과 아름다움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감정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무시되었으며, 왜곡은 주제나 내용을 강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그림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다.

19세기 말 이전엔 형식의 아름다움이나 구성의 조화가 감성적인 메시지의 명료한 전달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 규범(관습)의 완전한 파괴는 없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표현주의'와 20세기 예술의 한 경향으로서의 '표현주의'는 당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독일의 표현주의

독일의 표현주의 미술에 준 영향

마티스가 이끈 야수파의 회화는 가장 격렬한 그림에서도 구성의 조화를 무시하지 않았고 색채도 장식성과 서정성을 잃지 않았던 반면, 독일에서는 이런 억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즉 형태와 색채를 통한 왜곡은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과 창작으로 향한 욕망의 심리적·상징적 표출이었다. 1913년 키르히너는 "우리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순수한 창조적 충동을 유발하는 모든 색채를 수용한다."고 썼다.

그로므로 독일 미술은 고전적 기풍에 젖어있는 프랑스 미술의 입장에서 보면 낯설고 거친 그리고 미완성에 가까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다리파에 가담했던 놀테는 아소르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활동후 느낀 점

- 이번 활동으로 전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쟁은 우리의 삶의 많은 영향을 끼친다. 다른나라가 전쟁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기도 한다. 미술에도 전쟁의 영향이 끼쳤다. 전쟁은 정말 해서는 안될것 인것같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루빨리 모두가 아프고 고통받는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